



비가 내린 17일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 구장 실내 연습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17일 IOC 조사평가위원들이 강원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노드 경기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는 삼성전자 회장인 이근희 IOC 위원. (평창유치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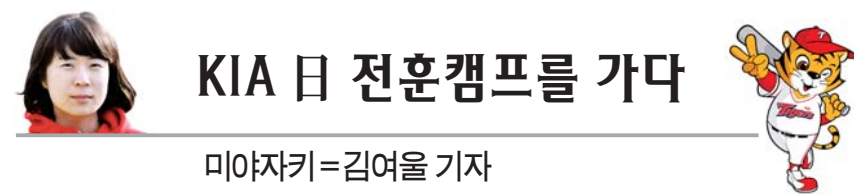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보인다”

이근희 IOC위원 밝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이 강원도 평창의 동계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근희 회장은 17일 IOC 조사평가단의 보광리노스파크 현지실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평창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4년 평가단 방문과 비교해 “나아졌다”고 전했지만, 투표권을 가진 IOC 위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렵고 예민한 질문이다. IOC 위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광리노스파크 호텔에서 미리 기다리다 평가단을 영접한 이 회장은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경기장과 스노보드 경기장에서 진행된 현장 프레젠테이션도 참관했다. 현장실사가 끝나고 IOC 평가단을 보광리노스파크호텔 내의 아시안식당으로 초청해 약 1시간30분 동안 오찬을 주재하며 환담한 이 회장은 평가단이 탄 버스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찬 행사는 이 회장의 차녀인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의 남편인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함께했다. /연남뉴스

“하루 1000개 프리베팅 ...이런 훈련 처음”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특훈 등 10시간 이상 실땀 없는 스케줄 소화
신입 호랑이 이범호 혁혁 “지옥캠프 따로없네”

“이런 야구 처음입니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역대 최고의 훈련량을 보이면서 ‘지옥캠프’로 불리고 있다. 선수단의 공식 훈련은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된다. 코칭스태프 미팅에서 지정된 특별훈련조가 가장 먼저 오쿠라기하마 구장에 집을 풀고 캠프의 하루를 연다. 특훈조가 밥을 흘리기 시작할 때쯤이면 선수단 본단이 경기장에 나타난다.

스트레칭과 톱토스로 몸을 풀 선수단은 조를 이뤄 분구장, 연습구장, 실내연습장, 볼펜을 돌면서 실땀 없이 이어지는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30분 가량의 점심시간이 선수들이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도 경기장에는 배트 휘두르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특타가 무려 10시간 이상 이어지는 셈이다.

휴식일에도 마냥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훈련조에 포함되는 선수는 오전 훈련을 한 뒤에야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기상악화’도 훈련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 14일에는 미야자키에 캠프를 차린 이후 처음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선수들은 내심 오전부터 계속된 비에 일찍 훈련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예상과 달리 오히려 더 힘든 하루를 보냈다. 실내 연습장에서 배팅훈련과 수비, 웨이트 훈련 등을

할 선수단은 이날 오후 늦게 해가 나오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 방망이를 돌린 뒤에 야숙소에 돌아올 수 있었다. 보통 하루 1000개 이상의 프리베팅을 해야 한다. 다음날 열렸던 홍백전에서 “억울해서라도 잘 쳐야 한다”는 응원 소리가 나올 만큼 선수단은 빗속 강행군을 펼쳤다. 많은 비가 내렸던 17일에도 선수들은 모든 일정을 소화한 뒤에야 훈련장을 빠져 나

올 수 있었다. 빗속 러닝까지 하게 되면서 최고참 이종범도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숙소에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다. 훈련량 많기로 소문난 KIA지만 올해는 더욱 강도가 세졌다. 조별전 감독이 올 시즌 초반부터 순위싸움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연습경기 일정도 빨리 시작됐고 횡포도 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 강행에 신입 호랑이

이 이범호는 혀를 내두르고 있다. 새로운 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훈련을 따라 가느라 팀 분위기가 살얼결 뜰 못했다. 이런 야구 처음이다”고 대답할 정도다. 시즌 준비 페이스가 빨라지고 훈련량도 많아지면서 선수들의 부상을 걱정하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는 않다. ‘지옥 캠프’의 결과가 올 시즌 KIA 팬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wool@kwangju.co.kr

빅초이 너무 열심히 했나?

허리 통증에 스프링캠프 중도하차 위기

‘빅초이’ 최희섭이 스프링 캠프 중도 하차 위기를 맞았다.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이 허리 통증으로 스프링 캠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허리 디스크 증세가 있는 최희섭은 현재 통증이 재발하면서 개인훈련만을 하고 있다. 1주일가량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13일 배팅 훈련에도 나섰지만 통증이 심해지면서 선수단과 따로 훈련을 하고 있다. 최희섭은 “허리 통증으로 2주전부터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리에 앉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다”며 “연습도 못하고 경기에도 뛸 수 없는 만큼 차분하게 재활에 집중하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수단에게 미안하다. 지난해까지 주장을 맡았던 김상훈 선배님과 역할을 상의하겠

다”고 덧붙였다. 최희섭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데다 캠프 일정 이 훈련 모드로 실천 모드로 전환되는 만큼 구단도 최희섭의 귀국을 검토하고 있다. KIA는 18·19일에는 요미우리 그리고 야쿠르트 2군과 경기를 치른다. 24일부터는 가고시마로 캠프를 옮겨 롯데와 4차례 연습경기를 갖는 등 ‘실전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프로야구 공인구 단일화 추진

메이저리그 시합구 채택 검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을 높이고 프로야구 공인구를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사용 중인 공에 가깝게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BO는 오는 3월8일 열린 8개 구단 단장 실용위원회 회의 때 공인구 통일안을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시즌에는 기존 4개사 공 가운데 빅라인스포츠(SK·삼성·LG·넥센)와 스프링필드(두산·롯데·KIA), 맥스스포츠(한화) 등 3개사 제품이 사용된다. 하드스포츠 제품은 올해 채택되지 않았다. KBO가 ‘통일 시합구’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미국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롤링스사 가 만든 공을 단일 시합구로 쓰고 있다. 일본야구기구(NPB)도 올 시즌부터 12개 구단이 메이저리그에서 사용 중인 공처럼 반발력이 적은 미즈노사의 공을 단



〈WBC 공인구〉

일 공인구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국은 2006년 WBC 4강 진출, 2009년 WBC 준우승,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0년 광주 아시아게임 우승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대회 때마다 대표팀 선수들이 공인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두 차례 WBC에선 롤링스사 공이 공인구로 사용됐고, 베이징올림픽과 광주 아시아게임 때는 미즈노사 공이 시합구로 쓰였다. 특히 미즈노사 공은 국내 공인구보다 크기가 작고 실밥이 덜 도드라져 미끄럽기 때문에 투수들이 변화구를 구사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KBO는 롤링스사 공이 국내 제품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공의 반발력과 탄성, 무게, 돌레 등이 메이저리그시 공인구에 가장 가까운 제품을 단일 시합구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남뉴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사설/월물 대표이사 010-7570-7525				속박시설/상가 감란승사 010-8033-0114				공방/토지 경사 010-5879-0005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당골동	대4500,24909	6497	11900	5층평층빌딩	대4500,24909	6497	11900	5층평층빌딩	대4500,24909	6497	11900	5층평층빌딩		

아파트/빌라 임대호전부사 011-684-3886 **주택/재개발 감란승사 010-8033-0114** **근린주택 경사 010-5879-0005**

병원, 교회, 사옥, 모텔,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무)과정」
1학기(15주) 수강생모집 2011년 2월 25일까지 마감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실무교육반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전문부사, 매수전략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사설	농가사설	근린주택	창고/용지	농가주택	아파트/빌라
· 서구 광천동 토지006평 건평230평 2중건물 경평구 95500원 최저가 16000원 · 광안구 월동동 토지 10평 건평 75평 지하 1층 지상층 2중 733평 최저가 79000원 · 함평군 월곡동 토지 1000평 건물 400평 최저가 193000원 · 나주시 세전동 토지 6700평 건물 1800평 경평구 19000원 최저가 7000원	· 북구 동림동 토지 699평 건물 1200평 1층상가 2-3층 다가구주택 2억 4천만	· 담양군 대전면 토지 3800평 건물 1500평 경평구 395000원 최저가 190000원	· 서구 세화동 토지 523평 건물 138평 서평구 70000원 최저가 89000원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대지 154평 현행 1대지 5천8백만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목포 우암동 사위나(2-3층) 4층 빌딩매매

- ▶ 대지(중심상업) : 210평
- ▶ 건물(4층) : 470평(2007년신)
- ▶ 매매가격 : 23억(매출 14억원 포함)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점)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지 : 1500평(6차선 도로점/1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 ▶ 대지 : 5000평 @ 12000평
- ▶ 준주거지역(등림지구) 건너편
- ▶ 건물 : 30평 30평, 창고 80평 @상가 200평 공장 2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 ▶ 대지 : 2000평(생산녹지지역)
- ▶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 ▶ 매매가격 : 17억(월 건물 600평 포함)

문의: ☎ 016-644-4265, FAX. 523-8558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널 공원사거리)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신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시분할과 연일 본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 223-1772 ☎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복동, 대인동 신복리 2번)